

## 비디오 '꿈' 작가 윤애영 -1

어느 날 장자는 꿈에 나비가 되어, 날개를 펼치며 꽃 사이를 즐겁게 날아다닌다. 너무나 기분이 좋아서 자신이 장자인지도 모른다.

그러다 꿈에서 깨어보니, 자신은 나비가 아니라 장자이다. 장자는 사색에 잠긴다. 조금 전 꿈속에서 나비가 되었을 때 자신이 장자인지 몰랐다. 꿈에서 깨고 보니 자신은 장자이다. 꿈에서 깨어난 자신은 정말 장자인가? 아니면 나비가 장자가 된 꿈을 꾸고 있는 것인가? 장자는 묻는다 :

"지금의 나는 과연 진정한 나인가? 아니면 나비가 나로 변환 것인가?"

장주몽접(莊周夢蝶), 유명한 장주(莊周)의 나비(蝶)의 꿈(夢) 이야기이다.

수천 개의 아틀리에

윤애영 비디오 작가의 아틀리에 수는 셀 수 없이 많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의 아틀리에에는 점점 더 많아 질 것이다.

전과상 아틀리에 - 우선은 그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칭 '전과상' 아틀리에부터 소개하기로 한다. 카페가 여기저기 눈에 많이 띄는 15구의 어느 넓은 정원에 한편으로는 커다란 아파트가 그리고 이 아파트와 마주하여 문화성 소속의 4개의 아틀리에가 나란히 있다. 첫 번째 아틀리에에는 루마니아 작가가, 두 번째 아틀리에에는 프랑스 조각가, 세 번째 아틀리에에는 바로 윤 작가의 아틀리에이고, 네 번째 아틀리에에는 더블린에서 주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튀니지 출생의 프랑스 작가 아틀리에이다. 네 명의 예술가들은 비록 서로 국적이 다르고 작업방식도 많이 다르지만 예술 이야기, 삶이야기를 나누며 친하게 지내고 있다. 이들 가운데 윤 작가는 가장 젊은 뿐더러 이곳 아틀리에의 입주기간(2002년)도 가장 짧다. 이웃 아틀리에의 한 작가는 윤 작가가 아틀리에에 입주하기前, 한 할머니 화백님이 그 곳에서 오래 작업하셨는데, 그 분은 피카소의 친구였다고 한다.

윤 작가의 아틀리에로 들어가면 3면의 벽에 바닥부터 천정까지 조금의 여유 공간도 없이 상자가 가득가득 쌓여있다. 상자에는 전시되었던 작품들이 분해되어 담겨있다. "상자 속에 작품들이 숨쉬고 있어요. 가끔은 이 상자들을 열어 맑은 공기도 쉬게 해주고 손볼 곳은 살펴서 돌봐줍니다"라고 윤 작가는 말한다. 한번 전시 후에는 대형 상자 6개 혹은 7개가 나오고, 그동안의 전시에서 생긴 수많은 나무 상자는 지하 까브(창고)에도 그리고 갤러리나 미술관의 보관창고에도 있다. 또한 집 안에 조그마한 여유 공간이 있는 곳에는 작품의 한 부분이었음직한 오브제들이 마치 숨바꼭질 하듯이 여기저기 숨어있다. "저의 소생애 그리고 저의 생활은 이처럼 나무상자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나무상자들 속에 있는 작품들이 계속 숨쉴 수 있도록 돌봐주는 것도 비디오 작가의 중요한 한 역할"이라는 윤 작가의 말이 단지 아틀리에에 있는 상자들만을 볼 때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알 수 있었다.

처음에 기자가 윤 작가님께 아틀리에를 보고 싶다고 하자, "저는 전과상밖에 안하는데요"라고 말한 이유를 깨달았다. 이 아틀리에에서는 전기 작업이라든가 컴퓨터 작업, 그리고 소품 등을 실험해보고 세부적인 것은 설치를 해보기도 하지만, 실제로 본격적인 작업은 전시장에서 직접 되어지기 때문이다.

3면의 벽이 상자로 뒤덮여 있는데, 신비하게도 한 면의 벽 반쯤은 아무 장식도 없이 하얗게 자신의 존재를 입증하고 있는데, 이 벽도 결국은 벽이 아니라 스크린이었다. "이 벽에다 비디오 프로젝트를 합니다." 윤작가의 설명은 커다란 창문의 양쪽에 걸쳐있는 낮선 두꺼운 검은 커튼에 대한 궁금증도 동시에 풀어주었다.

카페 아틀리에 - 윤애영 작가는 아틀리에 주변 카페의 개폐점 시간을 모두 알고 있다. 카페가 문을 열면 아침이든

저녁이든 카페에 홀로 가서 커피한잔을 놓고 장시간 사람들 혹은 풍경을 바라본다.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끼리 이야기하며 웃기도, 인상을 쓰기도 때로는 슬퍼하거나 노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이야기하는데, 옆에 혹은 맞은편에 앉아있는 저는 모르는 사람이니까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관심밖에 있지요. 그럴 때는 제가 마치 꿈속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흔히 꿈속에서 나 자신은 안보이지만, 사람들이 하는 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요. 또한 카페테라스에서 행인들이 저의 존재를 전혀 의식하지 않고 그냥 지나쳐 가는 것을 보면 제가 잠들어 있다는 느낌마저 듭니다. 결국 제게 카페는 꿈속에 있는 또 다른 현실입니다." 이처럼 카페는 윤 작가에게 끊임없이 장자의 나비의 꿈을 체험하게 하는 장소이다. 이러한 '꿈속의 현실' 혹은 '현실의 꿈속'인 카페에서 그는 구상을 하고 글을 적고 계획을 짠다. 구상이 잘되면 잘될수록 카페에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다.

보통사람들은 일이 급하면 급할수록 작업실에 머물러 일을 하지만, 윤 작가의 경우는 반대로 카페에 가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진다. 그러나 그에게 단골 카페는 없다. 카페 종업원 혹은 주인이 그를 의식하게 되면, 그 때부터 장자는 단지 장자일 뿐이지 더 이상 나비일 수 없기 때문이다.

전시장 아틀리에 - 전시가 있을 전시장 자체가 윤애영 작가에게는 아틀리에이다. 카페 아틀리에에서 영감과 구상을 하고, 전파상 아틀리에에서 세부적인 실험과 편집을 하고, 마침내 작품이 전시될 전시장에서 작품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단시일에 끝나는 작품부터 여러 달이 꼬박 소요되는 작품도 있기에, 규모에 따라서, 미술관 혹은 갤러리의 전시장은 베르니짜쥬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윤 작가의 아틀리에이다.

이러한 여러 아틀리에 가운데에서도 그에게 가장 중요한 아틀리에에는 바로 '삶'이라는 아틀리에이다. 윤애영 자신, 가족, 지인들, 하물며 지나가는 행인들, 나무 한그루와의 만남,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삶의 매 순간들은 그의 작품에 있어 가장 중요한 주제이자 재료이기 때문이다.

#### 새로운 문 열기

윤애영은 충청북도 증원군 업정면(부 윤중명, 모 이길주)의 1남 5녀중 막내로 태어났다. 언니들이 그리는 그림일기, 혹은 국어책에 나오는 그림일기를 보며 미술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진다.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 자연스럽게 미술반에 들어가 그림을 그리고, 화가가 되겠다는 꿈을 꾸며 학창시절을 보내고, 이화여대 미술대학에 입학한다.

미대에서 작업을 하며, 평면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 답답하고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마음껏 표현할 수 없다는 느낌을 가지고, 과 친구들은 페인팅을 할 때 윤애영은 천 조각을 가지고 혹은 못을 가지고 작업을 한다. 어느 날 교수님께서 아버님이 목수시냐고 왜 매일 못만 두들이나며 지적도 하셨지만, 그는 평면의 2차원적 세계를 뛰어넘기 위한 모색을 중단하지 않는다.

윤애영은 89년 미대 졸업 후, 여전히 채우지 못한 갈증을 풀기위해, 5년 계획으로 예술의 도시 파리의 문을 두드린다.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해 파리 국립 고등미술학교 (E.N.S.B.A 이하 보자르)까지 왔지만, 이 곳에서도 그를 충족시킬 만큼 특별히 새로운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갈등한다. 그러던 중, 한국에서 못보지 못했던 석판화 작업을 발견하고 이에 흥미를 느낀다. 석판화 작업과 사진, 설치 작업등으로 차츰 전개해가며, 새로운 도전과 표현방식을 실험해나가는 과정에서 비디오를 접하게 됨으로서 영상으로써의 시간표현과 또 다른 차원으로서 작업을 시도하게 된다.

비디오에 대한 첫 만남은 윤애영이 이화여대생일 때 워커히에서 백남준 선생님의 비디오 작품을 보았을 때이다. 많은 새로운 실험을 시도하는 파리 보자르에서도 윤애영이 수학할 당시에는 아직 비디오 아트가 없었고, 그가 졸업할 94년도 무렵에야 보자르에 비디오 아트가 소개된다. 따라서 그는 학교와는 별개로 이미 92년도부터 혼자서 비디오 작업이 행해지는 곳을 찾아다니며, 이를 직접 시도해본다. 그 당시 컴퓨터 없이하는 수작업은 많은 시간을 요구하

고, 편집도 부정확하게 되지만, 그렇다고 전문적인 스튜디오에 가서 작업을 하기에는 재정적으로 허락되지 않았다. 윤애영은 당시 KBS, 삼성, LG 지사장님들께 도움을 청했고, 양해를 얻어 그곳의 기기를 이용하여 작업을 할 수 있었다며, 비디오 아트를 하며 여러 가지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처럼 도움을 주시는 분들 덕분에 계속 할 수 있었다며 깊은 감사함을 표한다.

과리. 뿌리 깊은 나무에서

피는 영원한 꽃

비디오 작가로서는 미국이 더 유혹적인 나라가 아니었냐는 질문에 윤 작가는 설명한다 :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에는 새로운 것을 바로 건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럽과 같이, 특히 과리와 같이 소중한 문화유산이 가득한 곳에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는 것은 오랫동안의 신중한 숙고 이후에야 가능한 일입니다. 새로운 것을 위해 수천 년 된 소중한 문화유산을 파괴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로운 것을 건설한다 할지더라도 이미 기존해있는 문화재와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그러니 비록 새로운 것이 있더라도 쉽게 눈에 띄지 않습니다.

제가 도불할 당시에, 과리에 비디오 아트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기계가 낙후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이도 방금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예 기계가 없는 곳에서는 새로운 기계를 곧바로 수용할 수 있지만, 이미 구식기계나마 잘 사용해왔던 곳에서는 익숙해진 구식기계를 내던지고 낯선 새 기계를 도입하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도불을 결정한 이유는, 뉴욕과 비교하여 과리에는 새로운 것은 적지만, 그 대신 이곳에는 뿌리가 깊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미국으로 가고 싶은 유혹도 있었지만, 저는 뿌리 깊은 의식이 있는 유럽을 선택했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에서 한번 꽃이 피면 영원한 꽃이 핀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뿌리 깊은 나무에 접목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다. 과리의 삶에서 크고 작은 많은 희비가 겹쳤지만, 윤 작가는 새로운 문을 두드리는데 한번도 주저하지 않았다. 주어진 매 순간 순간마다 최선을 다하면, 결국은 문이 열린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기에, "작업할 때도, 설거지를 할 때도 충실하려고 애쓰고 또한 그러기에 매순간 즐겁게 보낼 수 있었다"고 한다.

"저는 놀때도 최선을 다해서 놀고, 작업할 때도 최선을 다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역시 최선을 다하려 합니다.

<춤추는 자가 되지 말고 춤 자체가 되라>는 인도의 신비주의 철학자 까비르 말처럼, 삶 속으로 뛰어 들어가 삶의 한 부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이들이랑 놀면서도 아이들에게 맞추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아이들 자체가 되어 놀 때 너무도 즐겁습니다."

하물며, 윤 작가는 잠을 잘 때도 기쁨으로 얼른 잠들고 싶어 한다. 왜냐하면 잠을 자면 그곳에 예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세계가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윤 작가는 알 수 없는 새로운 미지의 문을 항상 두드리고 그 문 뒤에서 발견되는 세상에 기뻐 놀라워하며 끊임없이 새로운 문을 두드린다. 그의 "작업은 창조라기보다는 발견"이라고 한다. 완전한 "無에서의 창조" (creatio ex nihilo)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미지의 단어이고, 삶의 신비를 찾는 여행자로서 자신의 작업은 "새로운 문 뒤에 있는 발견"과 같다고 한다.

2005년 윤애영은 프랑스 작가와 결혼한다. 시부모님 두 분 모두 작품 활동을 계속하시는 예술가이시라 그녀가 작품 활동하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실 뿐더러,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셔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다. 때때로 남편은 윤 작가가 현실 속에 없는 여자 같기도 혹은 꿈꾸는 소녀 같다고 한다. 윤 작가 남편의 말은 그녀의 삶과 작품 주변에 흐르는 커다란 흐름을 대변한다 : 장주몽접(莊周夢蝶)!

<심은록/ 과리지성> 3.26.2008

다음호에는 <비디오 '꿈'작가 윤애영 2부>가 계속됩니다.

## 비디오 '꿈' 작가 윤애영 -2

"수 많은 형용사를 동원하여 산딸기의 맛을 설명하더라도, 직접 그 맛을 보아야만 그 새콤 달콤한 맛을 느끼듯이, 제 작업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만이 아니라, 작품 속으로 들어가 숨쉬고 호흡하며 관객들 각자의 상상력이 어울러질 때 비로서 제 작업이 완성됩니다."

윤애영 비디오 작가는 그의 작업으로, 그리고 그의 꿈 속으로 관객들이 들어오기를 그래서 더이상 관객이 아닌 바로 작품 혹은 꿈 속의 주체가 되도록 우리를 초대한다.

작업을 할 때, 윤 작가는 어느정도 기본적인 전체적인 구성은 가지고 시작하지만, 어떤 정형적인 틀을 정해놓지는 않는다.

«모든 것을 미리 규정해놓고 이를 따라 한다면, 과거의 내가 작품을 하는 것이지, 작업을 하며 창작과 발견의 환희에 젖어 있는 현재의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는 작업을 할 때, '손'이라는 매체를 통해 또 다른 내가 나타나서 나를 조정하고 도와주는 것 같은 느낌도 존중합니다.»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

2차원적 평면(회화)에서 끊임없는 갈등과 탐구 속에 탈출을 시도하고, 본인 자체가 작품의 일부가 되기를 원했던 윤애영 작가가 유학 초기 파리 보자르에서 석판화 과정을 지나, 비디오 설치와 퍼포먼스(행위예술)로 작품을 전개한 것은 자연스런 과정으로 보인다.

퍼포먼스와 영상설치를 연합한 비디오 설치작품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1995)는 조&윤 이름으로 발표된 공동작품이다. 어두운 공간 중앙에 있는 높이 190cm 내경80cm의 밀폐된 투명 캡슐은 보이지 않는 인간한계를 상징하는 벽이며, 캡슐내부에는 증기로 가득 차있는데, 이 증기는 실존의 불투명성과 우발성(opacité, contingence)을 상징한다. 캡슐 안에 있는 한 인간은 오랜 노력 끝에 힘들게 이를 깨고 나온다. 그는 캡슐 밖에 있는 복중으로 인해 얻어진 안정과 환용كم의 자유에 만족해 자신의 알 (망사 천으로 상징)에 안주하여 웅크리고 있는 소극적인 인간의 의식을 깨우려고 노력한다. 퍼포먼스가 끝나면 빛이 사라지고 천정에 설치된 비디오 프로젝터로부터 저항의 몸짓을 담은 인체의 영상이 캡슐과 그 후면에 설치된 스크린 위에 여러 겹의 변형된 형상으로 비추어진다. 이 작품에서 퍼포먼스는 '실존'을 상징하고, 비디오 영상설치는 실존의 <흔적>을 상징한다.

비디오 설치 <흔적>(1999/2006)은 작가가 현재까지 연작 작업으로 계속 전개해 오고있는 작품으로, 돌 위에 사람의 영상을 직접 투사한다. 돌덩이 위에 투영된 알몸의 인간은 거친 숨소리와 함께 무언가를 쫓는 듯, 무언가에 쫓기는 듯 걸어가다 쓰러지고 또다시 걸어가다 쓰러지기를 반복하는 까뮈의 "시지프스의 신화"를 연상시킨다. 돌위에 투사된 인간이 돌의 재질과 자연스럽게 섞여, 돌과 인간은 하나로 합쳐져 숨쉬는 돌로 살아난다.

작가에게 있어서 비디오는 흩어진 기억의 흔적들을 주어 담고 그리고 이미 지나간 순간의 영상을 통해 기억 속에 새겨지고, 또 다른 영상을 통해 날려 보내고, 그리고 앞으로의 시간을 맞이한다. 영상이 움직이는 순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동시에 존재한다. 순간의 삶이 시간 속에 함께 존재한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 속에 잠시 나타났다가 이내 사라지고 마는 찰나적인 존재이지만, 작품 <저항하는 인간은 아름답다>와 <흔적>은 인간의 존재론적 한계와 그 한계에 대한 저항을 비디오 영상 매체를 통해 時空을 넘어서고자하는 인간의 자유의지와 실존론적 한계에 저항하는 동양적 까뮈와 사르트르의 고뇌가 표현되었다.

## "심연"

前아트프레스 및 르몽드 미디어아트 평론가인 장 폴 파르지가 지적한대로, 조와 윤은 "남성&여성, 빛과 그림자 그리고 고풍적 상징과 현대적 신호"로 나타나는 갈등과 화합의 이중주를 오랫동안 연주하며 공동작업을 해왔다. 99년 이후부터 윤애영은 독자적으로 활동을 전개한다. 이중주를 연주하다가 독주자로 새로 태어나기위한 끝없는 고통과 빈자리의 공허함은 <심연 3D>(2000)으로 나타난다.

이 작품은 2천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해 프랑스 파리에서 기획한 전시로 빠리의 까르나발레 미술관에서 열렸던 "3차원의 파리"(Paris en 3D) 전시(2000.10.3-12.31)의 초청 작품이다. 이 전시는 첨단기술의 테크놀로지 예술의 역사와 이 시대 미래의 영상을 대표 할 수 있는 입체영상 작품들을 보여주었다.

미술관을 찾은 관람객들은 전시장 안에 낯설게 놓여있는 하나의 커다란 배럴통을 발견하게된다. 이브의 자손인 인간은 호기심에 못이겨 통 속을 들여다 본다. 배럴통 양쪽으로 마련된 입체안경을 끼고 통 안을 쳐다본다. 작품 "심연"은 입체영상으로 제작되었으며, 깊이가 1미터 밖에 안되는 배럴통 속을 쳐다보는 순간, 관람객은 끝이 없는 심연과 공허를 마주치게 된다. 입체영상으로 처리된 육체는 배경과 분리되어 관객들 눈 앞에 허상으로 떠다닌다 : 마치 미켈란젤로의 "죽어가는 노예상"을 연상시키는 한 남자가 빠리의 어두운 골목에서 혹은 세느강 위에 떠돌고 있다. 혹은 옹크리고 앉은 한 여자가 파리의 밤하늘에서 공기보다 더 가볍게 부유하고 있다.

장 폴 파르지가 "윤애영은 비록 200 리터 짜리 통이 아닌 작은 찻잔을 사용했을 지라도"심연"을 잘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듯이, 아무것도 아닌 작은 일상 오브제에 심연을 담아내는데 성공했다. 이 3차원적 단순한 일상세계를 통해 허공의 침상에서 잠을 자는 듯한 심연의 끝, 한 없이 깊이만한 심연의 나락에, 4차원적 영혼상태를 구체화시켜 표현해 냈다.

## "비밀의 정원"

2000년대 초부터, 윤작가는 나무를 나타내는 작업을 많이 했다.

"저는 나무가 인간의 삶을 나타내는 우리들 영혼과 같다고 느낍니다. 언젠가 좌절되고 삶에 지쳐 헤아날 수 없는 상황에 빠졌을때, 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던 저는 하늘과 나무를 하염없이 바라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나무가 제게 말을 걸어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바라보았던 나무의 가지는 거의 찢리고 하물며 기둥까지 찢렸는데도, 남아있는 가지 끝으로 새 순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지가 찢리고 기둥이 찢리면, 더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데 말입니다."

비디오 설치 <비밀의 정원>은 바르셀로나의 메트로놈 재단 초대전(2001)에서 처음 보여졌고, 이후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러시아 국립미술관(2001), 프랑스 생프랑수아르 아트센터, 바스 노르망디 현대미술센터(2005)에서 재연되었다.

500m2 전시장의 전체 공간이 하나의 작품으로 설치되었으며, 작품을 감상 하기위한 여러 갈래의 길들이 있는 정원에서 관람객들은 신비의 산책에 초청된다. 정원에는 야생에서 피는 화려하지 않고, 자신을 드러내고자 애쓰지 않는 청순한 꽃 마가렛트가 가득피어있고, 매화꽃으로 만발한 나무가 발견된다. 마가렛트 사이사이 혹은 나무가지 사이 사이에 투명한 스크린들이 걸려있고, 그 위에는 더이상 2차원적 평면이 아닌 3차원적 비디오 영상들이 마치 어슴프레한 기억과도 같이, 혹은 우리 자신의 영혼의 흔적과도 같이 머물거린다.

"비밀의 정원"이 설치된 전시장에서는 보물찾기하듯 이러한 영상을 찾아 다니는 사람, 숲속에서 거닐듯 정원을 산책하는 사람, 하물며 나무 밑에 편안히 누워 휴식하는 사람도 있다.

"사람들이 작품 속으로 들어가 꿈속에서 산책하듯이 산책을 합니다. 어떤 길은 막혀있기도 어떤 길은 열려있기도 합니다. 산책을 하면서 나무사이에, 꽃틈사이에 있는 영상들을 발견하기도, 때로는 그냥 지나쳐 가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영상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느 길이 막다른 골목인지 관객들에게 알려주지않습니다."

작가는 "관객들이 정원을 거닐며 가지게되는 수많은 상상력과 감정들이 보이지 않는 이슬이 되어 내려 앉아,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질 때, 비로소 작품이 완성된다"고 말한다 .

## "떠도는 시간"

한국에서 파리로 오며 비행기 창문을 통해 손에 만져질 듯 보이는 구름바다를 보며, 저 위를 걸어볼 수 있다면 혹은 날아볼 수 있다면 하고 누구나 한번쯤은 잠시라도 상상해 보았을 것이다. 이러한 상상이 시각화 된 것이 바로 "떠도는 시간(구름)"(2006)이다.

이 작품에서는 발가벗은 어린 꼬마가 구름바다 위로 걸어간다. 때로는 사라졌다 다시 나타나며 목적지가 보이지 않은 곳을 향해 계속 걷고 있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지를 모르는,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우리의 삶에 더욱 중요한 것은 이처럼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끝없이 걷는다는 것이지 않을까요?"

"떠도는 시간(구름)"(2006, 비디오, 2mm), "떠도는 섬"(2002, 비디오설치), 제목 그대로 시간과 공간이 떠돈다. 우리는 '과거'(시간)에 '서울'(공간)이라는 섬에 잠시 머물렀듯이, '현재'는 '파리'라는 섬 위에 잠시 머물고 있다. 時空의 변화와 함께 우리의 정체성도 떠돈다 : 한국인도 프랑스인도 아닌 떠도는 정체성. 윤애영의 삶도 작품도 항상 이 섬에서 또 다른 섬으로 부유하는 것 같다.

그러나 바다 표면 위에서 볼때 섬이 세상과 떨어져 따로 존재하고 부유하는 것 같아보이지만, 실제로 섬은 수면 아래의 땅에서 모두 연결되어 있음을, 윤 작가는 삶과 작품을 통해 체험하게 된다. 단지 보여지는 현상만 섬이지, 심층에서 섬은 결코 섬이 아니다. 모든 것이 깊은 곳에서는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다.

## 꿈속으로의 초대

"작품의 주제를 어떻게 찾으시냐"는 질문에 윤애영 작가는 "마치 우리가 어떠한 주제의 꿈을 의식적으로 꿀 수 없고 꿈이 우리에게 다가오듯이, 저는 주제를 찾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제가 제게 다가옵니다"라고 대답한다.

"꿈은 만질 수 없지만 생생한 경험입니다. 저는 또 다른 어떤 시간 속에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느낍니다. 꿈 속에서는 제가 동시에 프랑스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새가 되어 혹은 물고기가 되어 '이중적, 삼중적 동시 공간체험'이 가능하며, 또한 어린시절과 현재 자신을 동시에 느낄 수 있는 역시 '이중, 삼중적인 시간체험'이 가능합니다. 여러 공간을 난다는 이러한 사실도 한번 깨어나면 영원히 잊혀버리는 또다른 우리의 중요한 실존이자 현실이라고 봅니다. 제게 꿈속의 삶은 저의 또다른 2중의 삶입니다."

윤 작가는 한 때 인도의 신비주의자 리즈니쉬나 신비주의 철학자 까비르에게 심취했었으며, 이 세계에서 보여지는 물질보다 보이지 않는 또 다른 세계가 관심의 주대상이었다. 그는 현실적인 것이 아니면 모두 좋았고, 그것이 가슴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라면 더욱 좋았다. "물 속의 물고기가 목마르다고 한다" (까비르, "천국으로 가는 시" 中)는 것은 마치 "군중속에서 고독"을 말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너무나 물질적인 것만을 바라보는 세상에 비물질적인 것이 외면당하고 있다. 세상에 사람이 점점 가득차 가는데도 사람들은 더더욱 외로워하고, 사랑과 관심에 목말라한다.

현대 독일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가 "존재의 망각"을 말했듯이, 윤애영 작가는 우리에게 또다른 종류의 "망각"을 일깨우고자한다. 존재에 대해 사유하는 노력과 경탄을 통해 동물이나 기계와 구분되는 유일한 존재자인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점차적으로 망각하고 있다. 꿈과 신비를 잊어버리고 자신을 지나치게 대상화함으로써, "신의 죽음"(니체)에 이어 "너무나 이른 인간의 죽음"(미셸 푸코)을 맞이하게 되었다.

계몽주의와 산업혁명 이후 현대문명에 이르기까지 "ready made"로 표현될 수 있는 우리의 세계는 시공간적으로 "hic et nunc"(지금 여기)라는 즉각성, 현재성에 함몰되어 "언젠가 혹은 다른 어느곳에"라는 신비성, 초월성, 무한성을 잊어버렸다. 어린 사과나무 묘목에게 지금 당장 사과를 맺으라고 요구하는 결과론적 사고, 혹은 사과 열매를 맺을 때까지 목적론적으로 기다리는 "hic et nunc"의 시대를 윤애영은 거부한다. 반대로 그는 사과묘목의 어린 아름다움에 신기해하고 감탄하며, 뜨거운 햇볕과 눈보라를 이겨내며 자라고 있는 사과나무를 꾸준하게 지켜보며 순간순간을 놀라운 눈으로 관찰한다.

그렇다고 윤 작가가 현대 문명을 거부하며 복고주의를 주장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반대로 그녀는 우리에게 '익숙한' 첨단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사용하여 우리에게 '낯설어진' 신비의 세계로 초대한다. '문명'과 '신비'의 우위를 가려 양자선택을 강요하는 이원론적인 도식이 아니라 '문명의 언어로 신비'를, '첨단 테크놀로지'로 '꿈을 시각화'하는 노력을 윤애영은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그래서 평론가 장 폴 파르지는 "윤애영은 가장 현대적인 작업을 하면서 사고가 테크놀로지에 점령되어 인간적인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닌, 오히려 테크놀로지를 넘어선 단계에 와있다"고 말했다.

Paris에 거주하며 유럽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있는 비디오설치작가 윤애영의 비디오 설치작품은 이미 프랑스 국립현대미술 콜렉션 소장(F.N.A.C), 한국 국립 현대미술관 등 그리고 여러 비중 있는 개인 또는 갤러리 콜렉터에게 소장 되어 있을 정도로 그의 작품은 가치를 인정받고있다.

윤 작가는 파리 중심의 갤러리 지역에 위치한 '알베르 배나무', '마미아 브레티쉬', 룩셈부르크에 있는 '톡시 ' 갤러리의 전속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현재 갤러리 알베르 배나무의 초대로 서울국제 아트 페어인 키아프(KIAF) 전시와 개인전 및 비엔날 빌레너브 전시등 여러 전시를 위해 부지런히 작업 중에 있다.

<심은록/ 파리지성> 3.30.2008